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 연구 : Q 방법론적 접근

Subjectivity on Communication Styles of Nursing Freshmen

: Q Methodological Approach

박정원, 정유희
서일대학교 간호과

Jeoung-Weon Park(jw_park@seoil.ac.kr), You-Hee Jung(snowyvii@gmail.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방법은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간호대학 신입생으로 구성된 P 표본 50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Q 표본 55개의 진술문을 11점 척도 분포도에 분류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PC-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 스타일은 ‘개방적 교류 촉진형’, ‘타인배려 경청형’, ‘비판예민 긴장형’, ‘교류회피 관찰형’으로 추출되었다. 개방적 교류 촉진형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개방적으로 자아를 노출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유형이다. 타인배려 경청형은 자신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 신중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스타일이다. 비판예민 긴장형은 비판에 예민하고 긴장하며 산만한 스타일로 친밀한 교류가 어려운 유형이다. 교류회피 관찰형은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타인을 관찰하면서 상호교류에 무관심한 방관자 스타일이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 신입생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의사소통 스타일 | 간호대학생 | Q 방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subjectivity on communication styles of nursing freshmen and explore their properties by using the Q Methodology. Fifty nursing freshmen of P sample classified 55 Q-statements into the normal distribution of 11 point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15 and analyzed by using PC-QUANL program. As a result, communication styles are identified as ‘Open-interaction facilitator’, ‘Other-considerate listener’, ‘Tense-sensitive to criticism person’, and ‘Non-interactive observer’. Open-interaction facilitators proficiently use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openly disclosing themselves and facilitating interactions with others. Other-considerate listeners primarily consider others before themselves, with careful communication. Tense-sensitive to criticism persons are nervous, sensitive to criticism, and are distractive style, so they have difficulties in intimate interaction with others. Non-interactive observers are bystanders who observe others and feel indifferent to interactions, without any self disclosur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developing communication educational programs for nursing freshmen.

■ keyword : | Communication Style | Nursing Students | Q Methodology |

* 본 연구는 2015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7월 23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12일

교신저자 : 정유희, e-mail : snowyvii@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과정으로,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돌봄 행위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 전문직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2-4], 간호학생이 졸업시점에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5].

우리나라 간호교육기관의 학부교육과정에서는 주로 1학년과 2학년 과정에 의사소통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6], 의사소통 교과는 전공기초교과로서 전공 이론 교과 및 임상 실습 전에 이수하도록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7]. 조인영[8]은 의사소통관련 교과목이 주로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는 제한적이며, 역할극 형태 등 수행 중심의 교육과 학생들의 요구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여 각 스타일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호대학 신입생들이 효과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졸업 시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5].

그동안 간호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연구는 실습 경험 여부와 자의식[9], 자기 및 타인 인식[10], 의사소통 불안[9][11][12], 성격 유형[13][14] 등 주로 치료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높은 자의식과 의사소통 불안은 치료적 의사소통 행위에 부정적으로 영향하고,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기술 수행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드문편으로 일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 Vries 등[15]은 표현성, 명확함, 공격적 언어, 탐색, 감성, 이미지 관리 등 6개 차원의 자가 보고식 의사소통 스타일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Brown 등[16]은 8개

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생 860명 대상으로 친절함, 주의 깊음, 생동감, 인상남기기, 정확성, 개방성, 역동성, 느긋함, 권위적, 논쟁적 등 10개 차원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자가 보고식 도구로 측정한 결과, 전공분야별로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정이입과 긍정적인 관계 등 대상자중심의 접근의 촉진적 의사소통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McKenna 등[17]은 간호학생 200명 대상으로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상대방의 말과 감정의 세부내용에 초점을 두는 경청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친절하고 주의 깊으며 생동감 있는 의사소통 스타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의사소통 스타일을 객관적인 도구로 측정한 결과로서 실제 간호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인식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사소통 스타일은 사회적으로 교류할 때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는지, 상대방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18]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Q 방법론은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관성을 표현하게 하고 이를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으로 나타냄으로서 외면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19].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교육과 임상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 유형을 확인한다.

2) 간호대학 신입생의 의사소통 스타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한다.

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의 주관성을 탐구하여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자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절차는 제 1단계로 Q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제 2단계에서 Q 모집단을 토대로 Q 표본을 선정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P 표본을 선정한 후, 제 4단계에서 Q 분류와 추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 별 자세한 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표집방법

1.1 Q 모집단의 구성

Q 모집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박정원[20]이 Stephen과 Harrison[21]의 Communication Style Q-Set(CSQS)을 토대로 간호대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수정 개발한 60개 진술문을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5월 S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중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지각한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한 비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음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57개의 진술문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박정원[20]의 60개와 추가 확보된 57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간호학 의사소통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 등을 참고하여 의미가 중복되는 진술문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총 90개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1.2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으로부터 Q 표본 선정을 위해 90개 진술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사소통을 하위차원으로 범주화하였고, 범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 나갔다.

Q 모집단이 의사소통 스타일의 하위 차원으로 효율성, 주도성, 자기노출, 타인이해, 수용 및 존중, 비언어적 표현, 자기노출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차원을 잘 서술해주는 진술문을 긍정, 중립, 부정적 표현 특성을 고려하여 총 55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 표본이 의사소통 스타일을 잘 반영하는지 Q 모집단 구성을 위한 면담 참여 학생들에게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진술문들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55개의 Q 표본을 확정하였다.

1.3 P 표본의 선정

P 표본 선정을 위해, 먼저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1학년 전체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 및 방법을 공지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5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일대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방법, 참여 대상자들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소정의 사례로 도서상품권을 제공하였다.

1.4 Q 분류 과정과 방법

Q 분류는 P 표본 50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별로 미리 약속한 시간에 학교 내 세미나실 또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기간은 2015년 6월 4일부터 10일까지였다. 먼저 Q 분류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각 진술문이 적힌 55개의 카드를 하나씩 읽으면서 주관적 견해의 중요도에 따라 동의, 중립, 비동의로 분류하게 하였다. 이후 동의한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을 오른쪽(+5)에서부터 중앙으로, 비동의한 진술문 중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을 왼쪽(-5)에서부터 중앙으로 배열하여 11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분류 후 P 표본에게 개방형 설문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장점 및 단점을 기록하게 하였다. Q 분류 및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2. 자료분석방법

P 표본 50명의 간호대학 신입생이 분류한 55개의 Q 진술문들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동의하는 항목 11점으로 입력하여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Q 요인을 판단하여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 선정을 위해 Z-score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Q 요인 형성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요인분석 결과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Q 요인 수를 결정함에 있어 유형별 아이겐값과 상관관계, 유형별로 Z-score가 절대치 1.0이상인 진술문을 검토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1].

표 1.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1	1.000	0.456	.110	.287
유형 2		1.000	.344	.402
유형 3			1.000	.267
유형 4				1.000

각 유형별 설명력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형 1은 30%, 유형 2는 10.8%, 유형 3은 5.8%, 유형 4는 4.9%를 설명하여 4개 유형이 전체 변량의 51.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형별 아이겐값과 설명변량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아이겐값	15.022	5.393	2.880	2.476
변량	.300	.108	.058	.049
누적변량	.300	.408	.466	.515

P 표본의 유형별 특성 및 요인가중치는 [표 3]과 같다. P 표본은 총 50명으로 유형 1이 17명, 유형 2가 24명, 유형 3이 5명, 유형 4가 4명으로 분류되었다.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해당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상자임을 의미한다.

표 3. 유형별 P 표본의 특성 및 인자가중치

유형	대상자 (번호)	성별	인자가중치
유형 1 (N=17)	43	여	2.921
	11	여	2.119
	3	여	1.522
	41	여	1.182
	27	여	1.056
	8	여	.966
	45	여	.929
	23	여	.889
	38	여	.830
	17	여	.815
	32	여	.775
	30	여	.744
	39	여	.683
	14	여	.653
	20	여	.621
	2	남	.611
	24	여	.558
유형 2 (N=24)	36	여	1.835
	19	남	1.506
	1	여	1.437
	25	여	1.200
	40	여	1.175
	47	여	1.155
	50	여	1.038
	6	남	.975
	49	여	.947
	37	여	.946
	31	여	.906
	5	여	.874
	15	남	.857
	35	여	.845
	42	여	.792
	28	남	.779
	9	여	.762
	4	여	.723
	34	여	.705
	29	남	.637
	18	남	.614
13	여	.556	
33	여	.519	
21	여	.497	
유형 3 (N=5)	22	남	1.329
	10	남	.779
	44	여	.602
	46	여	.465
	7	남	.460
유형 4 (N=4)	48	남	1.765
	16	남	1.147
	26	여	.638
	12	여	.577

2. Q 유형분석

분석 결과 Q 유형은 4개 유형으로서 간호학 분야에서 다수의 Q-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와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5년 이상 강의한 교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적 교류 촉진형’, ‘타인배려 경청형’, ‘비판예민 긴장형’, ‘교류회피 관찰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은 가장 동의 또는 가장 비동의 하는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Z-score)가 ± 1.00 이상인 항목과 각 유형별로 타 유형과 표준점수 차이가 ± 1.00 이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면담으로 수집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또는 비동의 하는 문항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2.1 유형 1: 개방적 교류 촉진형

유형 1은 전체 대상자 50명 중 17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30%를 차지했다. 16명이 여학생이었고 1명이 남학생이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4], 유형 1은 의사소통 시 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 적절한 눈 접촉,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에 능숙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도록 잘 드러내는 등 개방적으로 자아를 노출하는 유형이다. 또한 대화 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제안, 정보 제공, 유머 등의 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하며, 상대방이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을 주도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이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5], 유형 1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적 문제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접촉 등 비언어적 표현을 잘 사용하며,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대화를 주도하였다.

표 4. 유형 1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점수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 (얼굴 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1.84
37	나는 대화 시 내 감정을 잘 표현한다.	1.72
47	나는 적절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1.59
12	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한다.	1.58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54
52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1.49
28	나는 제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먼저 대화를 주도한다.	1.35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불어 넣는다.	1.34
4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1.31
45	나는 대화 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1.02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01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09
53	나는 ‘있잖아요’, ‘당신이 아다시피.’ 등 상투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1.14
19	나는 다른 사람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6
33	나는 대화 시 머뭇거리다.	-1.19
39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1.34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1.36
40	나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	-1.45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1.62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1.84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97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들의 개방형 설문 답변과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43번 대상자와 추후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을 격려, 위로하고 공감한다.’, ‘타인에게 신뢰받는 편이다.’, ‘의견을 잘 내며 솔직하게 말한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유형 1은 편안한 자세로 의사소통 기술과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유형으로 ‘개방적 교류 촉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2 유형 2: 타인배려 경청형

유형 2는 전체 대상자 50명 중 24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0.8%를 차지했다. 18명이 여학생이었고 6명이 남학생이었다.

표 5. 유형 1에서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점수	타 유형	차이
37	나는 대화 시 내 감정을 잘 표현한다.	1.72	-0.76	2.48
44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낸다.	.98	-1.31	2.29
50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을 한다.	.67	-1.12	1.79
28	나는 제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먼저 대화를 주도한다.	1.35	-0.00	1.35
52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1.49	.41	1.08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1.84	.76	1.08
41	나는 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67	.47	-1.14
19	나는 다른 사람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6	.25	-1.41
38	내 감정을 숨기며 얼굴 표정을 관리한다.	-.84	.59	-1.43
40	나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	-1.45	.00	-1.45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1.84	-0.30	-1.54
55	나는 대화 도중 텔레비전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등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쓴다.	-.98	.64	-1.62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98	.18	-2.16
39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34	.98	-2.32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6], 유형 2는 주로 듣는 편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경향자이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으며,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거나 끼어들지 않고,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말하며, 대화중에 상대방의 잘못을 즉각 시정하는 것을 피하는 등 조심스럽고 신중한 의사소통을 한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7], 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상대방의 얘기를 주로 경청하고,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

표 6. 유형 2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점수
30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다.	2.17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1.71
3	나는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64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46
4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1.40
47	나는 적절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1.35
11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말한다.	1.35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풀어 넣는다.	1.18
12	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한다.	1.13
52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1.12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11
2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1.12
31	나는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낸다.	-1.15
15	나는 대화중에 주제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1.18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23
14	나는 대화중에 남의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1.42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든다.	-1.64
17	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는다.	-1.76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2.11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2.11

나 목소리가 떨리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등, 자신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 초점을 두는 의사소통을 한다.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들의 개방형 설문 답변과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36번 대상자와 추후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 입장을 습관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위로를 잘 한다.’, ‘생각이나 감정이 정리된 후에야 표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답답하다고 한다.’, ‘눈치를 보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한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유형 2는 따뜻한 태도로 타인을 입장을 배려하여 신중하게 의사소통하는 유형으로 ‘타인배려 경청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7. 유형 2에서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 점수	타 유형	차이
30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다.	2.17	-.02	2.19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67	-1.13	1.80
36	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과 달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74	-.54	1.28
48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한다.	.98	-.17	1.15
11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말한다.	1.35	.24	1.11
3	나는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64	.60	1.04
13	나는 가끔 대화 내용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	-.71	.30	-1.01
15	나는 대화중에 주제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1.18	-.10	-1.08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든다.	-1.64	-.55	-1.09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21	1.30	-1.09
29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1.12	-.02	-1.10
7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편이다.	-2.11	-.99	-1.12
17	나는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는다	-1.76	-.43	-1.33
42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끔씩 과장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98	.36	-1.34

표 8. 유형 3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점수
32	나는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2.01
55	나는 대화 도중 텔레비전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등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쓴다.	1.90
24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바꾸어 설명하거나 재진술한다.	1.70
12	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한다.	1.66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49
9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1.35
39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1.28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불어 넣는다.	1.22
54	나는 말하거나 듣는 동안에 옷, 머리카락, 손, 다른 것들을 만지작거리다.	1.22
46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뿐 아니라 행동 (얼굴표정이나 의미 있는 몸짓의 사용)을 통하여 나타낸다.	1.18
25	나는 보기를 들거나 예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1.14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10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1.27
31	나는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떠들다.	-1.40
44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낸다.	-1.43
23	나는 또박또박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1.48
10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준다.	-1.51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82
50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을 한다.	-2.45

2.3 유형 3: 비판예민 긴장형

유형 3은 전체 대상자 50명 중 5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8%를 차지했다. 2명이 여학생이었고 3명이 남학생이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8], 유형 3은 타인의 비평에 민감하며 쉽게 감정을 상하고, 대화 도중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쓰거나, 옷, 머리카락, 손, 다른 것들을 만지작거리는 등 산만한 의사소통을 한다. 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 듣지 않으며, 비판에 민감하며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매우 긴장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도 잘 안한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9], 유형 3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평에 민감하고, 긴장이 높고, 산만하며, 비언어적 신체적 표현을 꺼리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 또 대화중 상대방의 잘못을 즉각 시정하는 등의 미성숙한 의사소통 스타일이다.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들의 개방형 설문 답변과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22번 대상자와 추후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을 먼저 파악한 후에 말한다.’,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친밀한 친구가 적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유형 3은 타인의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하며, 대화 시 산만하고 긴장하는 유형으로 ‘비판예민 긴장형’이라고 명

표 9. 유형 3에서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 점수	타 유형	차이
32	나는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2.01	-.51	2.52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50	-.97	2.47
55	나는 대화 도중 텔레비전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 등 주변 자극에 신경을 쓴다.	1.90	-.32	2.22
24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바꾸어 설명하거나 재진술한다.	1.70	-.05	1.75
14	나는 대화중에 남의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01	-1.36	1.37
9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1.36	.26	1.10
19	나는 다른 사람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69	-.37	1.06
47	나는 적절하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11	1.27	-1.16
4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23	1.01	-1.24
48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한다.	-.82	.43	1.25
23	나는 도박도박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1.48	-.10	-1.38
30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다.	-.79	.96	-1.75
10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준다.	-1.51	.67	-2.18
50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을 한다.	-2.45	-.08	-2.37

명하였다.

2.4 유형 4: 교류회피 관찰형

유형 4는 전체 대상자 50명 중 4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9%를 차지했다. 2명이 여학생이었고 2명이 남학생이었다.

강한 동의와 비동의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10], 유형 4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대화 시 편안한 자세로, 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감정을 숨기고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등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타인을 관찰하는 방관자 같은 유형이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대답하고, 웃, 머리카락, 손, 다른 것들을 만지작거리며 잘못을 즉각 시정하지 않는 등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다른 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표 11],

표 10. 유형 4에서 강한 동의, 비동의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점수
39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2.02
45	나는 대화 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1.94
38	내 감정을 숨기며 얼굴 표정을 관리한다.	1.84
2	나는 대화하는 상대를 동등하게 대한다.	1.46
30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다.	1.46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1.27
54	나는 말하거나 듣는 동안에 옷, 머리카락, 손, 다른 것들을 만지작거리다.	1.16
41	나는 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1.02
53	나는 '있잖아요', '당신이 아시다시피..' 등 상투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1.02
35	나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	-1.25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39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42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1.46
31	나는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낸다.	-1.57
14	나는 대화중에 남의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1.78
44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낸다.	-1.86
34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매우 긴장한다.	-1.87
32	나는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2.03

유형 4는 다른 유형에 비해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얼굴 표정을 관리하며 감정을 숨긴다. 또 타 유형에 비해 간단하게 대답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며, 상대방의 견해,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지 않는 등 교류를 회피하고 타인을 관찰하는 스타일이다. 유형 4에 속한 대상자들의 개방형 설문 답변과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48번 대상자와 추후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들어주는 편이다.', '감정을 숨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한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유형 4는 상대방에게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교류를 회피하며 상대방을 방관자처럼 관찰하는 유형으로 '교류회피 관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11. 유형 4에서 타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 점수	타 유형	차이
39	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한다.	2.02	-.15	2.17
38	내 감정을 숨기며 얼굴 표정을 관리한다.	1.84	-.29	2.13
40	나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대화를 빨리 끝 내려고 한다.	.94	-.79	1.73
45	나는 대화 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1.94	.59	1.35
41	나는 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대 답한다.	1.02	-.10	1.12
14	나는 대화중에 남의 잘못은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해 준다.	-1.78	-.76	-1.02
37	나는 대화 시 내 감정을 잘 표현한다.	-.99	.15	-1.14
52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44	1.05	-1.49
44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상대방 에게 나를 드러낸다.	-1.86	-.36	-1.50
12	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 의견 및 조언을 구한다.	-.39	1.46	-1.85
32	나는 비평에 민감하고 쉽게 감정을 상한다.	-2.03	.84	-2.87

2.5 공통적인 견해

본 연구의 4개 Q유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또는 비동의 하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동의는 2개, 비동의는 4개로 나타났다[표 12]. 동의한 항목은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와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붙여 넣는다.’이었다. 비동의 항목은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띤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 한다’ 등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대화 시 농담과 유머를 사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

표 12.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 항목

번호	항목	표준점수
51	나는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26
26	나는 자주 농담하거나 대화에 유머를 붙여 넣는다.	1.12
16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08
31	나는 말할 때 쉽게 흥분되어 격앙되거나 목소리를 띤다.	-1.21
43	나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 한다.	-1.37
8	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강압적이다.	-1.55

은 ‘개방적 교류 촉진형’, ‘타인배려 경청형’, ‘비판에민 긴장형’, ‘교류회피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개방적 교류 촉진형’으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개방적으로 자아를 노출한다.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의사소통을 주도하며 교류를 촉진하는 스타일이다. 조인영[8]은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로, 자기주도성과 적극성은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유형 1은 자신감 있게 대화를 주도하는 특성을 보여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유형이라 생각된다.

Satir는 의사소통 스타일을 기능적 의사소통 스타일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스타일로 분류하였는데[22], 유형 1은 기능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즉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명확한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기 자각과 자기 개방이 요구되는데[23], 유형 1은 자기 노출의 개방적 특성을 나타냈다. 또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유형 1은 얼굴표정과 몸짓, 눈 접촉 등을 선호하였다. Chan[24]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민감성을 질적 연구한 결과, 간호학생들이 상대방의 신체언어, 제스처, 접촉, 얼굴표정, 눈 접촉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의미를 이해할 때 간호 대상자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여 상호작용이 촉진되었으며, 간호학생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유형 1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제안, 정보제공, 유머 등의 치료적 의사소통기법들도 잘 사용하는 유형으로 간호학생들이

발전시켜야 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이라고 하겠다.

유형 2는 '타인배려 경청형'으로 자신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의사소통하는 스타일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따뜻한 태도로 상대방이 감정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기도 한다. 타인을 배려하다보니, 반응이 늦어져 '답답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공감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때로는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등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임승주와 박은영[25]은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 후에 간호대학생들의 변화를 질적 내용분석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자기만족에서 조심스러움으로', '말하고 듣는 행위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동지에서 공감으로', '감정포장에서 감정표현으로', '상대방 탓에서 내 탓으로'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고 하고, 단순히 듣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감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유형 2는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과 유사한데[22], 회유형은 자신은 편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은 편하게 대해 주고, 내면의 감정을 숨기면서 표면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같이 행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을 포함한 의사소통 교육이 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25],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들이 자기감정, 생각, 열망, 기대 등을 인식함으로써 자기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유형 3은 '비판예민 긴장형'으로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여 쉽게 상처받는 유형이다. 낮은 상황에서 긴장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산만한 의사소통 스타일로 친밀한 교류가 어렵다. 유형 3은 대화시 긴장하는 등 의사소통 불안이 높는데, 높은 의사소통 불안 수준은 의사소통의 시작과 지속을 어렵게 하고, 의사소통 기술 수행정도라도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어[12],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에 방해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간호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의사소통 불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26], 간호학생들의 의사

소통 기술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유형 3은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산만형과 유사한데[22], 산만형은 주위가 산만하고 말에 일관성이 없으며 대화주제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을 살피는 유형이다. 산만형 스타일은 자기 자신, 타인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 기능적인 의사소통 스타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3].

유형 4는 '교류회피 관찰형'으로 편안한 자세로 상대방의 얘기를 주로 들으면서 타인을 관찰하는 유형이다. 타인의 비평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며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관리한다. 또 애매한 태도로 취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호교류에 무관심한 방관자 스타일이다. 유형 4에 속한 4명의 대상자와 추후 면담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며 방관자 입장에서 타인을 관찰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에게 비추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큰 경우, 대인관계에서 외적으로는 적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여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인 불안을 경험하기가 쉽다[27]. 유형 4도 '타인배려 경청형' 과 같이 상호교류에 대한 자기이해 및 인식과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P 표본 50명중 개방적 교류 촉진형은 17명, 타인배려 경청형은 24명, 비판예민 긴장형은 4명, 교류회피 관찰형은 4명으로 분류되었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스타일로 볼 수 있는 개방적 교류 촉진형은 17명으로 34%에 해당하였다.

간호 분야에서 의사소통 스타일을 Q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박정원[20]이 병원간호사와 수간호사 등 43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스타일을 Q 방법론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 박정원[20]은 4개 유형으로 촉진적 관계 지향형, 폐쇄적 추종형, 지배적 주도형, 자기중심적 상황 의존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와 Q 표본과 연구대상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으나 본 연구의 개방적 교류 촉진형과 유사한 '촉진적 관계 지향형'이 38명(88%)으로, 간호사가 성숙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간호학생들이 간호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타 전문직과 협동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스스로 관찰 분석하고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타인배려 경청형', '비판예민 긴장형', '교류회피 관찰형' 등의 의사소통 유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향후 연구대상자들이 간호학 프로그램 이수 후 졸업 시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스타일을 연구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량적 측정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개인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Q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서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Q 표본은 향후 의사소통 스타일을 탐색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탐구하고자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P 표본 50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Q 표본 55개의 진술문을 분류하게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C-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은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개방적 교류 촉진형'으로, 의사소통 기술과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유형이다. 유형 2는 '타인배려 경청형'으로, 따뜻한 태도로 타인을 입장을 배려하여 신중하게 의사소통하는 유형이다. 유형 3은 '비판예민 긴장형'으로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고 긴장하며 산만한 의사소통을 보이는 유형이다. 유형 4는 '교류회피 관찰형'으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교류를 회피하며 상대방을 방관자처럼 관찰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

일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사소통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자기노출 정도, 대인간 불안 수준 등 개인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의사소통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 추후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H. E. Peplau,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 1991.
- [2] D. Sherrod, B. Sherrod, and T. Sherrod, "Expand your communication style," *Nursing*, Vol.39, Suppl Men, pp.18-21, 2009.
- [3] 송미령, 김은만, 유수정,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수행 능력 영향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90-401, 2012.
- [4] <http://www.kabon.or.kr/>
- [5] 봉은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94-402, 2013.
- [6] 배수현, 박정숙,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과외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02-214, 2015.
- [7] 송지호,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간호학 학사학위 과정)*, 서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 [8] 조인영,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교육요구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593-2601, 2015.
- [9] 박정원, 김근면, "간호대학생의 자의식과 의사소통 불안이 대인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제19권, 제1호, pp1-10, 2011.

- [10] 오은정,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1] P. J. Silvia and A. G. Phillips,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trait communication apprehension: Is there an impact on basic course success?," *Commun Res Rep*, Vol.19, pp.29-37, 2001.
- [12] J. Arquero, J. A. Donoso, T. Hassall, and J. Joyce, "Accounting students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A study of Spanish and UK Students," *Eur Account Rev*, Vol.16, pp.299-322, 2007.
- [13] 박정원, 최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간호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 *스트레스연구*, 제21권, 제3호, pp.213-227, 2013.
- [14] 신경아, 이은숙,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49-158, 2011.
- [15] R. E. de Vries, A. Bakker-Pieper, F. E. Konings, and B. Schouten, "The Communication Styles Inventory (CSI): A Six-Dimensional Behavioral Model of Communication Styles and Its Relation With Personality," *Communication Research*, Vol.40, No.4, pp.506-532, 2013.
- [16] T. Brown, B. Williams, M. Boyle, A. Molloy, L. McKenna, C. Palermo, L. Molloy, and B. Lewis, "Communication styles of undergraduate health students," *Nurse Educ Today*, Vol.31, No.4, pp.317-322, 2011.
- [17] L. McKenna, T. Brown, M. Boyle, B. Williams, C. Palermo, and E. Molloy, "Listening and communication styl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Vol.4, No.11, pp.50-58, 2014.
- [18] R. E. de Vries, A. Bakker-Pieper, R. A. Siberg, K. van Gameren, and M. Vlug, "The Content and Dimensionality of Communication Styles," *Communication Research*, Vol.36, No.2, pp.178-206, 2009.
- [19] W.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20] 박정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1] T. D. Stephen and T. M. Harrison, "Assessing communication style: A new measur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14, No.3, pp.213-234, 1986.
- [22] 한금선, 양승희, 손정남, 박정원, 김근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론, 제 3판*, 서울: 고문사, 2014.
- [23] V. Satir, *사티어 모델(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2000.
- [24] Z. C. Chan, "A qualitative study on non-verb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 Clin Nurs*, Vol.22, No.13-14, pp.1941-1950, 2013.
- [25] 임승주, 박은영,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51-162, 2013.
- [26] 박정원, 하나선,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 기술 수행", *스트레스연구*, 제22권, 제4호, pp.169-180, 2014.
- [27] 이수진, 안경식, "청소년의 자의식과 정서조절양식이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pp.151-170, 2010.

저 자 소 개

박 정 원(Jeoung-Weon Park)

정희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2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 의사소통

정 유 희(You-Hee Jung)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박사수료
 - 1997년 3월 ~ 2009년 3월 :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간호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의사소통